12만 농업경영인의 힘과 지혜로 '대선 후보 초청 한농연 농정공약 토론회'를 성사시키자

400만 농민과 12만 농업경영인은 제16대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400만 농민들에게 이번 대통령선거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고 민족의 생명산업으로 지켜갈 올바른 철학과 안목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농업을 정책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농업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왔다. 그 결과 새로운 농업투자 정책은 물론이고 농업예산 확대에 소극적으로 변해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대비 8%대로 떨어졌으며, 농가소득은 정체하는 대신 농가부채는 급증하였다. 또한, 한 · 중마늘협상의 은폐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국민적 합의 없이 한 · 칠레 FTA를 추진하고 있다. 즉, 농업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의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철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번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을 개최하는 첫 번째 의의다. 400만 농민의 권익을 찾는 다양한 운동전개와 함께, 16대 대통령으로 올바른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수립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지지할 때, 200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정부에서 우리 농업의 활로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통해 모인 12만 농업경영인 앞에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공약을 제기하고, 각 정당이 이를 공표한다면 차기정부는 이를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들어 한농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관철시켰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이나 '마사회 농림부 이관', '직접지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은 97년에 한농연이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향후 '농정공약 이행 운동' 으로 더욱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오는 11월 5일(화) 오후 1시에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펜싱경기장)에서 한농연 회원과 농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를 개최하는 것이다.

대선후보의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직접 평가해보자.

이번 토론회에는 ▲원내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 ▲전국적 정당조직을 갖추고 있는 주요 후보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시 3위권 이내 후보가 참석하게 된다. 현재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 ▲정몽준 후보(창당예정)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4명이다.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는 총 4부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1부. 농업경영인 농정대개혁 촉구대회' 에서는 한농연의 농정개혁운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4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담은 농정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발표로 차기정부가 실천해야할 농정과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게 된다.

농정개혁 10대 과제

- ▲농가부채 해결
- ▲WTO통상대책 수립 및 한 · 칠레FTA 중단
- ▲쌀농가소득안정대책 수립
- ▲농어촌복지특별법, 학교급식법 제개정
- ▲농민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개혁
- ▲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10% 상향조정
-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실질적인 농업재해대책 마련
-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가격 안정대책 수립
- ▲농업인력 육성강화 및 지속 지원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계획

■ 1부. 농정대개혁 촉구대회(13:00~14:00)
- 식전행사 / 내빈소개 / 개회사 / 축사 / 경과보고
- 농정개혁 10대 과제 발표

2부. 각당 정책위의장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 (14:00~16:30)
- 영상물상영(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 각당 농정공약발표
- 패널토론

3부. 각당 대선후보 농업관 강연(16:30~17:55)

4부. 농정개혁 촉구결의문 낭독(17:55~18:00)

후 활동계획을 천명할 것이다.

'2부. 각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에는 각당 정책위의장과 농업전문가 1인씩이 참석하여 각당의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학계와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패널은 농업현안 및 각당의 농정공약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할 것이다.

'3부. 대선후보의 농업관 강연'은 각당의 대선후보가 20분씩 후보자신의 농업관에 대한 피력과 당선 이후의 주요 공약 및 농정방향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농정대개혁 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12만 농업경영인과 400만 농민의 의지를 모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이

모이자, 11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12만 농업경영인의 힘을 모읍시다.

한농연이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온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는 대통령 후보들의 농업관과 각 당의 농정공약을 한 자리에서 비교 · 분석해볼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은 대선공약 요구사항과 10대 농정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차기정부가 이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400만 농민과 12만 농업경영인 회원이 농업과 농촌 회생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농연